

치솟는 물가에 폭염까지...취약계층 '이중고'

생활지원시 현장 동행해보니

전기요금 부담에 선풍기 못 들어
가스요금 인상 등 서민들 '시름'
"장기적 복지향상 사업 수립을"

송 씨 집은 바닥엔 곰팡이가 까맣게 피어 있었고, 습하고 더운 공기에 밖이 더 시원할 지경이었다. 송 씨의 한 달 생활비는 기초 노인연금 30만원과 노인 일자리 27만원, 총 57만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치매, 골다공증 등 병원 진료비로만 매달 30만원 이상이 지출된다. 최근 들어 전기세도 오르면서 선풍기 코드도 아예 뽑아 버렸다.

송 씨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미안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한다"며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여름이 빨리 지나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기세 인상과 잇따른 물가 폭등으로 취약계층들의 삶은 더욱 팍팍하다.

이날도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독거노인 수십 명이 경로당에 모여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월산동 경로당에서 만난 김모씨(71)는 "무더위에 집에서 선풍기를 끄고 있으면 금방 몸이 얼

"허름한 집 하나가 내 명의라고 병원 진료비 지원을 못 받아요. 어쩔 수 없이 전기세라도 아끼려고 선풍기도 틀지 않아요."

27일 오후 광주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치솟으면서 취약계층의 시름도 더 깊어지고 있다.

남구 월산동에서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송 모씨(85·여)는 2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홀로 단칸방을 지키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27일 오후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치솟으면서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인 월산동 경로당으로 모이고 있다.

아서 경로당에 나와서 전기세를 아낀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병원비라도 지원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을 돌보는 생활지원사 강 모씨(57·여)는

매주 독거노인 17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강 씨는 하루에 4-5가구를 도보로 방문,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온몸이 흠뻑 젖지만 오히려 마시는 물의 양은 줄었다. 어르신들의 사정을 알게 된 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다.

강 씨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알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에도 눈치가 보인다"면서 "야외 노출이 많지만 취약 계층이 전기세를 아끼다 보니 근무 내 시원한 바람 쐬기도 힘들며 퇴근하고 온열질환을 호소하는 생활지원사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남구 3곳의 노인복지센터에서 147명의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 2,330명에게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지원사 한 명이 담당하는 독거노인은 16명 수준이다.

김선녀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노인 계층중 중 빈곤층이 다수이며 의료 복지 서비스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당장 의료비 확대 등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사업을 수립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의료 복지를 향상시킬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글·사진=민찬기 기자



삼계탕·열무김치 나눔 2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 나눔터에서 열린 '삼계탕과 열무김치 나눔' 봉사활동에 참가한 허정 지사 회장과 에덴병원 임직원, 봉사원 등이 삼계탕과 열무김치를 포장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전남 3개월 만에 다시 5천명대

코로나 확진자 가파른 상승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개월 만에 다시 5,000명대로 늘어났다.

2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2,890명, 전남 2,637명으로 총 5,527명이다.

광주·전남 일일 확진자가 5,000명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23일(5,544명)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앞서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18일 하루 확진자 3,026명을 기록한 이후 23일까지 5세 연속 하루 3,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24일에는 주말 검체 채취 감소 영향으로 2,000명 대로 주춤했으나 월요일인 25일 4,000명대를 돌파, 전날에는 5,000명대까지 넘어섰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광주 56만1,959명, 전

남 62만7,688명 등 총 118만9,647명으로 늘었다.

전날 전남에선 확진자 1명이 숨져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총 1,076명(광주 573명·전남 503명)으로 늘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 광주 1명, 전남 8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 모두 가족·지인·직장 동료 등 일상생활 도중 감염이 잇따랐다.

전남은 22개 모든 시·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지역 별로는 여수 466명, 순천 408명, 목포 358명, 나주 221명, 광양 219명, 무안 153명 순으로 많았다. 이어 장성 86명, 곡성·영광 각 83명, 화순 73명, 고흥 71명, 해남 65명, 담양 60명, 장흥 49명, 영암 48명, 함평 38명, 구례·보성 각 30명, 완도 29명, 진도 26명, 신안 25명, 강진 16명 순이었다. /임채민 기자

파출소서 수배범 도주...경찰, 7시간 만 검거

경찰 파출소로 잡혀 온 지명수배범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가 약 7시간 만에 붙잡혔다.

27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 수

배 상태에서 검거된 A씨(37)가 광산서 모파출소에서 이날 오전 4시경 도주했다.

그는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연행된 상황이었다.

A씨는 수배 내용을 확인한 경찰의 본서 인계 과정에서 잠시 얻은 휴식 기회를 틈타 도망쳤다.

도주 당시 A씨 손목에 수갑은 채워져 있지 않았고, 파출소 건물 밖으로 담배를 피우려 나갈 때 경찰관 1명만 동행했다. 피의자 도주 방지 등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 /윤영봉 기자

광주 자동차 검사소서 화재...1명 사망

27일 오전 7시 19분경 광주 광산구 도천동 한 자동차 검사소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검사소에 있던 차량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불은 건물 2층 일부를 태우고 45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신원 및 사망 경위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영봉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하기 

